

박인비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LPGA투어 KIA 클래식서 개인 통산 21승 달성 올림픽 2연패 도전 파란불... 출전권 예약 수순

'골프 여제' 박인비(33·사진)가 올해 처음 출전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라베드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660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KIA 클래식(총상금 180만 달러)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공동 2위 에이미 울슨과 렉시 톰프슨(이상 미국·9언더파 279타)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박인비는 1~4라운드 내내 단독 선두를 유지하며 우승에 이르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박인비가 공동 선두를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우승은 지난해 2월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 이후 1년 1개월 만에 거둔 박인비의 개인 통산 21번째 우승이다.

4승을 더하면 박세리(44·은퇴)가 보유한 한국인 LPGA 투어 최다승 기록인 25승과 타이틀 이루게 된다. KIA 클래식에서 2010·2016·2019년 3차례 준우승만 했다가 11번째 출전인 올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날 5타 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출발한 박인비는 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12번홀(파4), 13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냈다. 리프에서 친 두 번째 샷이 그린 뒤 편 리프로 넘어가고, 세 번째 샷도 러프에 머물렀다. 박인비는 네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린 뒤 보기 퍼트로 잘 마무리했다. 위기를 잘 넘긴 박인비는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냈지만, 우승을 지키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쉬었던 박인비는 3개월 만에 출전한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한국인 선수



의 첫 우승이기도 하다. 박인비는 올림픽 2연패 도전에도 파란불을 쳤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인비는 이번 우승으로 올해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예약 수순에 들어갔다. 도쿄올림픽에는 6월 말 세계랭킹 기준으로 한 나라에서 상위 2명씩 출전할 수 있다. 세계랭킹 15위 내에 2명 이상의 선수가 들어 있는 나라는

15위 내에서 최대 4명 나갈 수 있다. 박인비는 세계랭킹 4위로,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 2위 김세영(28)을 이어 3번째로 랭킹이 높아 안경권에 있다. 세계랭킹 8위 김효주(26)가 뒤를 잇고 있다. 또 4월 2~5일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피레이션을 앞두고 감각을 끌어 올려 메이저 개인 통산 8승 기대도 부풀렸다. 연합뉴스

GS칼텍스, 무실세트 우승 노린다

여자프로배구 PO 3차전 서브·리시브가 우승 열쇠

여자프로배구 GS칼텍스의 레프트 강소희(24)는 "플레이오프에서 서브 폭탄을 맞는 다른 팀 선배들을 보며 '남일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챔피언결정전에서 강소희는 공격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로 팀 승리에 공헌했다.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GS칼텍스는 26일과 28일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1, 2차전에서 모두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승했다. 30일 인천 계약체육관에서 치르는 3차전에서도 3-0으로 승리하면 2015-2016시즌 현대건설에 이어 여자부 역대 두 번째로 챔피언결정전 '무실세트 우승'의 진기록을 세운다. 프로배구 컵대회 우승,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GS칼텍스는 여자부 사상 첫 트레블과 구단 첫 통합우승에 단 1승만 남겼다. 대업을 무실세트 진기록으로 장식할 수도 있다. 챔피언결정 1, 2차전에서 공·수 모두 GS칼텍스가 흥국생명을 압도했

다. GS칼텍스의 챔피언결정전 공격 성공률은 48%, 리시브 효율은 42.55%다. 흥국생명은 공격 성공률 33.5%, 리시브 효율은 30.6%였다. 리시브 정확도가 높으면, 속공, 퀵오픈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GS칼텍스는 안정적인 리시브로, 높은 공격 성공률을 만들었다. 강소희도 GS칼텍스의 리시브 라인을 안정시킨 '공신'이었다. 26일 1차전에서 강소희는 GS칼텍스에서 가장 많은 17번 서브 리시브를 했다. 범실은 한 개도 하지 않았고, 7차례 완벽한 리시브를 했다. 1차전 강소희의 리시브 효율은 41.18%였다. 28일 2차전에서 강소희는 16번 상대 서브를 받았다. 리베로 한다혜(24번) 다음으로 많은 서브 리시브를 했다. 강소희는 2020-2021 정규리그에서 리시브 효율 39.26%를 찍었다. 지난 시즌(30.99%)보다 9% 포인트 가까이 정확도를 높였다. 흥국생명 레프트 김미연은 플레이오프에 이어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서브 폭탄에 시달린다. 김미연이 GS칼텍스의 목적타 서브를 버텨내지 못하면, 흥국생명이 반등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연합뉴스



태권도 킥 29일(한국시간) 코소보의 파딜 보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유럽 B조 예선 스웨덴과 코소보의 경기에서 대표팀 은퇴 5년 만에 복귀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전매특허' 태권도 킥으로 기막힌 어시스트를 하고 있다. 즐라탄은 2경기 연속 도움쇼를 펼치며 배테랑의 품격을 발휘했다. 이날 즐라탄의 활약에 힘입어 스웨덴은 3-0으로 완승하며 2연승을 내달렸다. 연합뉴스

제주시체육회 운영 유소년 체육교실 모집

제주시체육회는 성장기 유소년의 신체 균형 발달과 협동심 제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유소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1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유소년 생활체육 교실'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실에서는 야구, 축구, 방송댄스, 트램펄린, 주짓수·킥복싱 등 각 7개 종목이 수준·연령별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제주시관내 초·중등학교 재학생으로 1인 1종목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안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3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신청순)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호 시체육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우승·4강 직행·6강 확정 "1승 남았다"

프로농구 순위 경쟁 윤곽 프로농구 2020-2021시즌이 정규리그 막바지에 접어들어 가운데 주요 순위 경쟁도 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팀당 54경기를 치르는 정규리그는 4월 6일로 막을 내린다. 이번 주까지 모든 팀이 53번째 경기까지 치르고, 정규리그 최종일인 4월 6일에는 오후 7시부터 동시에 5경기가 펼쳐진다. 순위 경쟁 주요 지점마다 순위가 확정되기까지 1승만 남은 경우가 많다. 정규리그 1위를 눈앞에 둔 전주 KCC는 30일 2위 울산 현대모비스가 원주 DB에 패하면 1위가 확정된다. KCC 팀으로는 2015-2016시즌 이후 5년 만에 정규리그 1위, 전장진 KCC 감독 개인으로는 부산 kt 사령탑 시절인 2010-2011시즌 이후 10년 만에 정규리그 제패다.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는 2위 자리가 정해지는 데도 1승이 남았다. 모비스가 30일 DB를 꺾으면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4강 직행 티켓

은 KCC와 현대모비스 차지가 된다. 6강 경쟁 역시 현재 5위 kt와 6위 인천 전자랜드가 1승만 더하면 7위 삼성의 6강 희망이 사라진다. 삼성은 남은 3경기에서 다 이기고, kt나 전자랜드가 남은 경기에서 모두 패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최하위인 10위 자리 결정에도 1경기가 남았다. 8위 서울 SK나 9위 DB가 1승을 더하거나 10위 창원 LG가 1패를 더하면 10위는 LG로 굳어진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순위에서 1위, 4강 직행, 6강 진출, 최하위 등의 자리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3위 안양 KGC인삼공사와 4위 고양 오리온이 1경기 차인 가운데 4월 4일 맞대결을 벌이고, 반 경기 차인 5위 kt와 6위 전자랜드 역시 4월 1일 맞대결이 예정되어 순위가 바뀔 수 있다. 6강 플레이오프 대진은 4위와 5위, 3위와 6위가 맞붙기 때문에 6강 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들인 셈이다. 연합뉴스

時間

문창배 초대전

2021.02.18(목) ~ 04.16(금)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주말	Open 11:00	· 휴관 : 매주 월요일
	Close 18:00	(±,日)	Close 17:00	· 문의 : 064-750-2543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Gallery